

##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2.1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### ○ EU 연구혁신 생태계 재편을 위한 단일시장 규제 해소와 고TRL 중심 투자 확대(2.5)

- 최근 Science Business 연례 컨퍼런스에서 집행위 연구혁신총국장 르메트르와 유럽의회 의원 엘러는 유럽 혁신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경쟁력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단일시장의 규제 분절이라고 강조
- EU 연구혁신 자금이 고TRL(개발, 배포단계)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, 공동 연구 과제 공모 수를 줄이고 과제당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. 현재 EU 공동연구 자금 상당수가 TRL3~6 수준의 공동연구에 투입되어 시장 진입과는 거리가 있으며, 공모가 너무 많고 최종 선정되는 프로젝트에 지원금도 너무 적다며 공동연구 과제 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안
- ※ EU 공동연구 과제는 평균적으로 4년간 400만 유로, 11개 참여기관으로 구성되어 기관당 연평균 약 10만 유로 수혜
- ※ 한편, 행사에서 유럽이 연구개발 자금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 속 호라이즌 유럽 컨소시엄 축소·폐지하고, 보조금 예산의 20%를 삭감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상금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됨

### ○ 영국, FP10에 전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남겨 ... 이에 대해 학계 경고(2.4)

- 영국 연구혁신청(UKRI)장은 영국의 FP10 참여가 비용 대비 가치를 갖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차기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
- 학계 전문가들은 이는 연구 네트워크 단절과 안정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단순 참여를 넘어선 신뢰 회복과 적극적 네트워크 재건이 필수적이라고 경고
- (기타) ▲스웨덴 글로벌 연구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류 허가 제도 개편안(2.9) ▲EU, 유럽 최대 칩법(Chips Act) 파일럿라인 imec NanoIC에 7억 유로 투자(2.9) ▲ORE 확대는 “유럽 차원의 오픈엑세스를 위한 중요한 진전”(2.5) ▲고위급 전문가로 구성된 EC 연구혁신 정책 자문단(2.6)